

‘광주시정’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21일 ‘광주시민의날’ 중의공원서 첫 정책평가박람회 민선 8기 30개 주요사업 평가·의견 수렴 ‘공론장’ 마련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시정을 평가하는 첫 ‘정책평가박람회’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중의공원 일원에서 ‘2023 광주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정책평가박람회는 ‘시민이 행복해 더 나은 정책, 눈에 보이는 광주의 변화’를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민선 8기 대표 30개 사업을 소개하고, 시민의 평가와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정책평가 공론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사업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

행,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증액 및 2단계 조기 착공,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은 지난 4월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ON 등에서 51개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시민(3453명)과 시청 공무원(462명) 등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정책평가박람회장은 시장목표 5대 분야인 신경제(7개)와 환경(6), 돌봄(6), 안심(5), 혁신·교육(6) 등 정책별로 묶어 30개 부스를 설치한다.

정책평가박람회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은 현장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5대 분야별로 1개씩 선정하고 붙임 쪽지(포스트잇)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정책평가 결과를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 조정에 활용하고, 시민이 제안한 주요정책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정책평가와 함께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50% 할인 받을 수 있고 베트남의 날, 외국인 유학생의 날, 세계인의 날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처음으로 기획한 정책평가박람회의 시민평가를 통해 우수정책은 더욱 확신하고,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정책평가박람회를 시작으로 3분기 지역사회 리더 평가, 4분기 주요정책 우수사례 공유대회와 올해의 베스트(Best) 10 선정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부당”

당정 ‘전면 재검토 발언’ 비판...“법 근거해 정상 지원 이뤄져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정부와 여당의 한국에너지공단 흔들기(광주일보 5월 15일 1면)와 관련, “전남 도민,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 전면 재검토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눈덩이 적자 대책을 묻는 의원 질문에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에너지공대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허브이고 자부심”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도 특수대학을 설립해 산업화와 연결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서 나오는 출연금 축소 계획을 비판했다.

미국 보스턴의 올린공대(2002년), 뉴욕 코넬(2013년), 싱가포르 SUTD(2012년) 등 해외에서 첨단 과학 및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소규모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창업 중심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김 지사는 “한전이 적자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에너지가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한전 적자와 에너지공대 존립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공대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정상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에 대비한 기술 투자와 미래에 대비한 인력 투자는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대에 국내 첫 화합물반도체센터 구축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일괄처리...세계시장 선점 기반 마련

전남도가 최근 목포대에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기차, 5G·6G 통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화합물반도체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

화합물반도체센터는 화합물반도체 설계·제작(외주)·후공정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일괄 처리하는 기술 지원체계를 갖췄다. 제작은 국내외 화합물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윈세미(Winsemi)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하며 화합물반도체센터는 전국 대학 및 기업에 시제품 제작과 후공정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분사가 있는 웨이브피아(Wavepia) 등 10여 개 화합물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우주항공·통신 등 관련 반도체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기업 지원부터 센터 운영 전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대는 지난 3월 전국 11개 대학, 연구기관

및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했으며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0명 이상의 교수와 함께 소재, 공정설계, 공정장비 등 맞춤형 교육을 학·석·박사 및 실무인력에게 제공해 우수 인력을 지속 배출할 예정이다.

김중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국제 시장조사기관 올 디벨로퍼먼트에 따르면 대표적 화합물반도체인 질화갈륨(GaN) 시장 규모가 2021년 1억2600만 달러에서 2027년 20억 달러로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이라며 “전남도는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등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산업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합물반도체센터는 8월까지 구조 변경 및 기업 입주 절차를 거쳐 9월께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보전소 새단장 했습니다” 16일 광주 북구보전소 그린리모델링 준공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김형수 북구의회의장, 김은숙 보전소장 등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북구보전소는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지난 2021년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착수해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강기정 시장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할 것”

광주시 간부회의...연구센터 개소·인재 양성 등 성과 소개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의 결실이 될 수 있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광주시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통해 광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며 성과를 소개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27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삼성전자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 지난 8일 NHN 클라우드 연구개발센터 개소 및 전남대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 양성 업무협약 등을 완료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립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 사업 심사에서 I 권역(전남, 전

북, 광주)에 전남대(주관기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 대학 연합을 선정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기존 3가지 협약 실행에 덧붙여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가 될 것”이라며 “견고한 인재 양성 사다리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립제2요양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

다음달 5일까지 공모...24일 시청서 사업설명회

광주시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새로운 수탁자를 오는 6월 5일까지 공모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 덕남동에 있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공고일 현재 196병상 규모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5년간이다.

신청자격은 지역 제한 없이 공고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진단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시

립병원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관련조례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할 계획이다.

위탁 조건은 위탁에 따른 운영자원을 수탁자가 진로 수입 등으로 자체 부담하여 책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따른 사업비, 수탁자의 경영상 책임과 무관하게 발생한 운영적자는 평가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시청 세미나 1실에서 공모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신청서는 6월 2일과 5일 이틀간 건강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